

아침세평

김진구

광주시교육청 시민협력진흥원장



늘봄학교 수업을 보고 싶어서 한 초등학교를 방문했다. 로봇, 출납기, 컴퓨터, 영어회화, 한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었다. 부서의 특색에 따라 학생들의 활동은 다채로웠다.

양해를 구하고 김밥을 만들고 있는 요리부 교실에 들어가 참관했다. 학년 구분 없이 학생들이 희망하는 선택형 프로그램 중 하나였다. 20여명의 학생들이 모둠으로 나눠서 식재료를 앞에 두고 앉아 있었다.

어떻게 요리부를 희망했을까. 부모나 주변의 누군가 권유한다고 해도 관심이 없으면 쉽게 선택하기가 어려운 부서인데, 내가 지금 초등학생이라면 어떤 프로그램을 좋아했을까. 교실에 머문 내내 늘봄학교 신입생처럼 마음이 설렘다.

각각의 표정을 지으면서 고사리손으로 열심히었다. 햄과 달걀을 자르다가 끊어졌다며 선생님을 찾고, 딱딱한 단무지는 칼집이 어렵다며 선생님을 불렀다.

모듬 사이를 돌아다니며 입으로는 대답하고, 손으로는 거들어주는 강사의 모습은 분주했다. 손놀림이 빠른 고학년 학생들이 잘 말린 김밥 앞에서 팔짱을 끼고 여유 있는 모습이었다.

요리가 좋아서 이곳에 왔다고 했다. 미래의 요리사들이 눈 앞에 있었다. 요즘 TV 채널마다 먹거리 화면이 넘쳐나고 있다. 이 먹거리에 고정 출연하면 유명 인사가 되기도

한다. 훗날 이 화면들을 장식할 광주외 셰프들이 강사님의 도움으로 김밥을 만들면서 우우~쭉 자라고 있었다.

늘봄학교가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예전 '방과후활동'에서 '방과후학교'로, 다시 '늘봄학교'로 진화된 것이다. 교육부는 '2025년 늘봄학교 추진 계획'에서 정규수업의 새로운 초등교육 체제로서의 늘봄학교를 비전으로 삼는다고 밝혔다.

이러한 늘봄학교 정책은 부모의 직장이나 사회활동을 지원하고, 사교육비 경감을 통해 급감하는 저출산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교육부는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올해부터 늘봄연구사를 선발해 단위학교에 배치했다. 광주시교육청의 경우는 올해 51명을 선발했고, 내년에는 30명을 추가 선발해 배치할 계획이다.

맛별이 가정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 보육과 교육이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오늘의 현실이다.

특히 보육은 직장인의 근무시간을 비롯해 직장 문화를 바꾸고 있다.

자녀 양육이 이제는 교육(敎育)과 보육(保育)을 융합하는 양육(兩育) 개념으로 확산 정착된 느낌이다. 아직은 주춤한 상태이지만 유보통합이란 정책도 이러한 측면이 강하다.

그런데 지난 2월 우리 교육사에 지워지지 않을 참담한 사건이 있었다. 교사가 자신의 아픔 때문에 같이 죽을 대상으로 학생을 선택한 충격적인 범죄가 발생했다. 모든 국민이 분노하고 학생, 학부모는 불안이 뿔었다. 학생들의 안전 문제가 시급한 현안이 됐다.

광주시교육청과 직속 기관인 시민협력진흥원 늘봄지원센터에서는 지난 2024년부터 퇴직한 교직원들을 활용한 '꿈빛나눔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학생들의 안전과 학교 현장의 업무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한 신설된 사업이다.

그리고 공무원연금공단 광주전북지부와 업무협약을 맺고 퇴직한 공무원들의 인력풀을 통해 자원봉사와 다양한 사회적 경험을 활용할 방안을 준비하고 있었다.

전국을 비통에 빠지게 한 하늘이의 사건 이후 충분히 아니지만 개학과 함께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준비된 시스템 덕분이었다.

자원봉사자들의 역할과 활동 내용을 보면 시간대별로 다양하다. 현재까지 71명이 활동하고 있는 아침늘봄과 저녁늘봄은 안전한 등하교 지도나 독서 등 학생 개인활동을 돕고 있다.

그리고 수요가 가장 많은 오후늘봄은 137명의 봉사자들이 교실 간의 이동이나 안전관리 지원 보조, 급·간식 제공을 지원하는 등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하고 늘봄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활동하고 있다.

126개 초등학교에 208명이 매칭돼 활동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교직원이나 학부모가 자원봉사를 하는 경우도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총원할 계획이다.

그리고 150여명의 늘봄실사부, 300여명의 돌봄전담사, 1500여개 프로그램을 맡고 있는 수 백명의 프로그램 강사가 질 높은 수업과 안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시청과 함께 마을교육 공동체를 운영하고, 5개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맺어 온마을 이음학교가 탄실하게 연계돼 있다.

지역사회의 다양한 인적 자원이 늘봄학교를 비롯해 손길이 필요한 곳과 연계됨으로써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슬로건이 현행화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광주교육의 늘봄은 단 한 지역도, 단 한 가정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다문화 시대, 도서관은 더 넓은 공동체 문 연다

강성도

광주시교육청
송정다기문화도서관장

대한민국은 지금 인구 감소라는 중대한 전환점을 지나고 있다.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지방 소멸에 대한 우려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 사회는 또 하나의 뚜렷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바로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이다. 지난해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전체 인구의 4.8%에 달하고 있으며, 머지않아 OECD가 분류하는 '다인종·다문화 국가' 기준인 5%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제 외국인 주민은 산업 현장이나 특정 계층에 국한되지 않고, 우리 일상 곳곳에서 자연스럽게 함께 살아가는 이웃이 됐다. 이러한 변화는 복지, 교육, 문화, 행정 등 사회 전반에 걸친 새로운 대응과 통합의 관점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도서관이 맡아야 할 공공적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도서관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공간으로서, 단지 책을 읽는 곳에 그치지 않고 정보 접근의 기회를 제공하며 지역 공동체가 소통하는 중심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다. 특히 언어나 문화의 차이로 소외되기 쉬운 이주민에게 도서관은 한국 사회와 연결되는 첫 관문이자, 사회 통합의 기반이 되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

광주 광산구는 시 전체 외국인 인구의 절반 이상이 거

주하고 있는 대표적인 다문화 지역이다. 이 지역에 위치한 송정다기문화도서관은 지역적 특성과 시대적 요구에 맞춰 '다문화 특화도서관'으로 거듭나고 있으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이주민과 지역 주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포용적 문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

대표 프로그램 중 하나인 '다문화학생 한글 독서지원 프로그램'은 이주배경 아동과 청소년이 한국어를 익히고, 독서를 통해 사고력과 표현 능력을 키우며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통합 지원형 교육이다.

현재 이 프로그램은 고려인마을 청소년문화센터(100시간), 바람개비곶따리곶따리지역아동센터(200시간), 이주민영유아돌봄센터(78시간) 등 지역 내 다양한 기관에서 꾸준히 운영되고 있으며, 언어 습득과 문화 이해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이 가운데 한 사례로, 현재 초등학교 5학년에 재학 중인 우모군(11)은 2020년 카자흐스탄에서 입국해 고려인마을에 정착한 학생이다. 그는 독립운동가 박노승 선생의 고손으로, 조국의 뿌리를 따라 한국 땅을 밟았지만 처음에는 언어와 문화의 벽으로 인해 낯설고 두려운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도서관 프로그램에 꾸준히 참여하면서 빠르게 한국어를 익히고, 밝고 주도적인 학생으로 성장하게 됐다. 현재는 반장을 맡을 만큼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으며,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긍심을 갖게 됐다.

또 이주민 아동·청소년뿐만 아니라 독서 소외계층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도 활발하게 운영 중이다. 성인지적 장애인에 대상으로는 '다습장애인주관보호센터'에서

터'에서 78시간 동안 독서활동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을 위한 '반결을 책들이 교실'은 선예학교에서 진행 중이다. 이 프로그램들을 통해 도서관은 다양한 배경과 특성을 지닌 이용자 모두가 문화적 권리와 교육 기회를 동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처럼 도서관은 책을 읽는 공간을 넘어, 이주배경 아동과 지역사회가 자연스럽게 만나고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의 장, 배움의 장으로 기능하고 있다.

또 지역 주민들도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시민 감수성을 키워가고 있다.

다문화 시대의 도서관은 조용히 책을 보관하는 공간에서 벗어나, 언어와 국적, 문화가 다른 이들이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관계를 맺는 공존과 연대의 공간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과 행정적 지원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

전문 인력의 양성, 예산 확보, 지역 네트워킹과의 긴밀한 협력이 뒷받침될 때, 도서관은 지속 가능한 다문화 플랫폼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송정다기문화도서관은 앞으로도 이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성장을 돕는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지역 주민과 이주민이 함께 만드는 포용적 공동체 문화를 확산해 나가고자 한다.

다문화는 더 이상 일부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현실이다. 공존과 존중의 사회를 향한 작은 시작은 바로 이웃의 도서관에서부터 가능하다.

그 변화의 물결은, 조용하지만 따뜻한 도서관의 문을 여는 것에서 시작된다.

거부했다.

그 근거로 출범 당시 토대가 된 노사상생발전협정서에 '누적 생산 목표 대수 35만대 달성 시까지 상생협의회를 통해 근무 환경 및 조건에 대해 협의해야 한다'고 명시된 문구를 든다.

결국 '노사민정 조정·중재특별위원회'가 구성, '35만대 생산 목표 달성 시 까지 파업 유보' 등 중재안을 마련했지만 노조는 '노조탄압'이라며 사실상 거부한 상태.

양측간 이견의 폭이 깊어지는 사이 더 큰 여음이 찾아오고 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계 부과인데, 우리 수출기업들은 25%라는 높은 관세 장벽 앞에서 있다. 물론, 물량을 해외에 수출 중인 GGM 역시 관세 장벽에 비켜서지 못한다.

정부가 무지막지만 관세 대응에 착수했지만 어느 정도 실효성을 거둘지는 지켜볼 일이다. 이처럼 관세 폭탄이라는 커다란 장벽을 마주하고 있는 지금, 하루 빨리 협의를 끝내고 대외적 현실 대응에 힘써야 한다.

OPINION

2025년 4월 10일 목요일

사설

광주·전남 대선공약 차기 정부에 반영돼야

대통령 윤석열의 파면으로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의 차기 정부 국정과제 선점을 위한 행보 또한 빨라지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최근 6월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각 정당과 후보자에게 건의할 대선 공약을 확정·발표했다.

이는 인구감소와 경제침체 등 지역소멸위기에 있는 광주·전남이 미래산업과 지역 맞춤형 공약을 발굴해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 이들의 광주·전남공약에 우선적으로 반영시키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먼저 광주의 공약은 미래 먹거리인 인공지능 관련 산업을 중심으로 15대 과제, 40개 사업, 사업비 81조원 규모로 구성됐다.

먼저 AI(인공지능) 주도 성장으로 데이터가 돈이 되고 AI가 경제가 되는 AI 모델시타-더 브레인 광주 조성을 제안했다. 또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비롯해 빛그린 산단 등에 미래모빌리티 신도시 조성,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청 신설, 민·군 통합 서남권 관문공항 건설과 서남권 거점 공항도시 조성 등도 담겨 있다.

전남도도 비교우위 자원과 여건을 토대로 전남발전에는 필요한 핵심과제 20건, 분야별 지역발전 과제 35건, 제도 개선과 국정제안 과제 20건 등 모두 75건의 대선 공약을 제시했다. 예산 소요사업비만도 191조 9112억원이다.

전남도의 제1호 공약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과대가 없는 전남의 사정을 감안해 전남 국립 의대 설립으로 정했다. 이어 전남 경제의 버팀목인 석유화학·철강산업 대전환 메가프로젝트, 솔라시도 AI 슈퍼클러스터 허브 구축과 2. 3호 공약으로 분류됐다. 또 조선·해양 AI 초격차 자율제조 특구 조성, 에너지 고속도로 기반 에너지 신도시 조성, 우주발사체 산업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무안국제공항 및 미래 100년 초광역 교통망 확충 등도 핵심 과제에 담겼다.

이번에 제시한 대선공약들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지만 광주·전남의 미래를 위해서는 반드시 실현돼야 될 필수불가결한 사업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이들 사업들이 차기 정부의 중점사업으로 선정돼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

지역 레미콘 업계 '사면초가' 대책 절실

건설경기 부진이 장기화 되면서 지역 레미콘 업계가 '사면초가'에 빠졌다.

아파트 건설 등 전방산업의 침체로 출하량은 계속 줄고 있는데 원자재·운반비 가격은 치솟고 있고 건설사들은 가격 인하까지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얼마나 힘들면 '출하할수록 손해'라는 자조섞인 말까지 퍼들 정도다.

광주전남레미콘공업협동조합이 최근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역 레미콘 업체의 경영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 나타나 있다.

먼저 건설경기 침체로 지역 내 레미콘 업체의 연간 출하량은 매년 크게 줄고 있다. 지난 2020년 613만3360㎥(루베)를 기록했던 출하량은 2021년 572만32554㎥, 2022년 490만2764㎥, 2023년 446만 5902㎥, 지난해 440만2099㎥로 매년 감소세다.

지역내 환경적인 골재 수급처마저도 공급가격을 올리고 있고 이를 대체할 수급처 확보 또한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현재 심각한 부족현상을 겪고 있는 모래의 경우 수급처는 합평 뿐이고 나머지 부족분은 전북 남원에서 충당하고 있다. 합평 모래는 지난 1월 기준 ㎥ 당 2500원 올라 2만5000원에 거래되고 있고 남원 모래 올해 3월부터 지난해보다 4000원 뛰 3만3000원에거래되고 있다. 장성, 화순, 함평에서 공급되는 자갈도 3월부터 가격이 인상돼 ㎥ 당 2만2500원에 거래 중이다. 2020년 1만8000원이었다.

이 때문에 양질의 원자재 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 등에 골재 채취 인허가를 요구하는 관련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불가'라는 답변만 돌아오고 있다.

여기에 레미콘 가격의 20%를 차지하는 운반비(레미콘 믹스트럭)도 계속 오르고 있다. 전년도 운송비(6만4000원)보다 6000원 이상 오른 지난해 평균 운송비는 이달까지 적용되는데 벌써부터 7000원 이상 인상에 달라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건설업계의 단가 인하 압박 또한 거세다. 건설사 구매담당자들이 모여 만든 대한건설자재직업회화가 가뜰이나 힘든데 시멘트 가격을 t당 10%(1만1216원) 가량 인하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래 저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역 레미콘 업체를 위한 '납품대금연동제' 정상 작동 등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광남일보

www.GwangNam.co.kr

회장·발행인·편집인 전용준	논설실장 김상훈	편집국장 최현수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4 우편번호 61234 대표전화 (062) 370-7000 팩스 (062) 385-5400	정 치 부 370-7010 경 제 부 370-7020 사회교육부 370-7030 지역사회부 370-7040 문화체육부 370-7234 편 집 부 370-7082 사 진 부 370-7050	논 설 실 370-7060 뉴미디어본부 370-7222 임 월 실 370-7000 총 무 국 370-7093 사 업 국 370-7090 광 고 국 370-7070 독자관리국 370-7080 서울지사 ☎978-7090
1995년 12월 12일 창간 2012년 5월 3일 등록번호 광주 가-52(열간)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기사제보·기고 보내실 곳 전화 062-370-7030 팩스 062-385-5400 이메일 gndn2018@naver.com